

외국문인(外國文人)의 제상(諸像) —내가 영향(影響) 받은 외국작가(外國作家)

편집 선생이 주신 제목은 <내가 영향 받은 외국작가>이나, 나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니라, 소위 평론이라는 것을 끄적거리는 사람이므로 「작가」란 말을 시인, 소설가, 평론가, 예술·철학자까지도 포함한 문인 내지 예술사상가의 의미로, 그리고 영향이라는 말을 그들의 작품이나 논구를 통하여 배운 문학적 수법이란 국한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운 문학을 감상하는 태도와,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보는 눈과, 그리고 문학에 대한 이론까지도 내포한 광범한 의미에서 해석하려 한다.

지금까지 내가 독서한 양의 8, 9할은 문학서적이요, 또 그중의 8, 9할은 외국의 문학서적이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는 아직 한 번도 그것들을 앞에 놓고, 그것들을 읽음으로 인하여 나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문학을 감상하는 눈이 예리하여지기를, 문학에 대한 이론이 정확하여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까지 어떠한 훈련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편 적이 없다. 언제나 모든 작품, 모든 비평, 모든 문학이론에서 최대한의 영향을 받아들이려 하였다. 그때까지 형성된 나의 감상안과 문학이론에 비추어

아무런 반발함이 없이 영합되는 작품이나 이론을 대할 때는, 그로 말미암아 나의 감상력이나 이론을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였고, 그것과 반대인 경우라도 일률로 그것을 부정하는 일이 없이 나의 감상안과 이론을 반성하여 그 편협하거나 착오된 점을 시정하고, 또 아무리 하여도 그것과 동화할 수 없는 작품이나 이론을 대할 때는, 그것에 나의 감상안과 이론을 반발시킴으로써 그것들을 혼련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나는 한번 읽기 시작한 작품이나 평론을 흥미가 없다고 하여 중단에서 중단하고 만 일은 손꼽아 헤일 만큼밖에는 없다.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지금까지 읽은 외국의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평론이나, 그 하나라도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감상안을 열고, 비평적 태도를 정하고, 문학이론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내가 영향을 받은 외국의 문인이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더욱이 나에게는 어느 한 유파나 한 사람에 치우친 영향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주의 작품을 읽고는 곧 낭만주의 작품을 읽고, 낭만주의 작품을 읽고는 곧 고전주의 작품을 읽었으며, 어느 개인의 작품을 통독할 때에도 자연주의 작가 스트린드베리를 읽은 다음에는 메테링크를, 패덕자(悋德者) 와일드를 읽은 다음에는 인도주의자 톨스토이를 읽고는 했으므로 나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쳐 준 외국의 문인을 몇몇만 뽑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지금까지의 독서 경력을 더듬어 아직까지도 비교적 선명히 인상에 남은 외국의 작자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영향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겠다.

내가 제일 처음 읽은 외국작품은 중학 2학년 때에 조선어 역을 통해 읽은 <무쇠탈>이다. 초저녁잠이 무척 많은 내가 며칠 밤을 새워 읽었을 만큼 그야말로 자미(滋味)진진하였다. 그 자미란 무슨 문학적 흥미가 아

니고 그저 아슬아슬하고 신통괴기한 탐정 취미였으나, 그때 조선 신소설 〈울릉도〉를 읽고 싹트기 시작한 나의 이야기책 취미를 완전히 퍼게 하여 주었으며, 그 이야기책 취미에서 나의 문학취미가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나를 만들어 준 점에 있어서는 단 어떠한 작품이나 작가보다도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읽은 것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영원한 남편〉으로, 이 작품은 나에게 러시아문학에 대한 열정을 부어 주어, 중학을 졸업할 때까지에 〈죄와 벌〉, 톨스토이의 〈부활〉,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처녀지〉, 〈첫사랑〉, 아르츠이바세프의 〈최후의 일선〉 등을 읽었다. 그때 아마 러시아문학의 심각성이 나의 어린 혼에 검은 그림자가 덮인 글을 뚫어 주었을 게다.

그 다음 내가 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이 쿠리야가와 하쿠손(廣川白村)의 〈근대문학 10강(講)〉과 신조사(新潮社) 출판의 〈근대문학 12강〉, 〈근대극 12강〉이다. 이 책들을 읽고 나는 근대문학사상의 유파의 이름과 그 각 유파에 속하는 대표적 명작의 이름을 알았다. 나는 그 후로는 그들의 대표적 명작이라는 것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읽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에 자연주의 작품을 읽으면 그 다음에는 낭만주의 작품을, 그 다음에는 신이상주의 작품, 그 다음에는 사실주의 작품, 또 그 다음에 자연주의를 읽고 하는 비교 대조법을 취하였다. 이것은 그리함으로 문학상의 각 유파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나, 이것도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유파에만 심취하여 문학에 대한 나의 태도가 편협해질까를 두려워해서였다. 그런데 내가 이런 독서 방법을 취하는 데 가장 편의를 본 것은 세계문학전집, 근대극전집 등 원본 출판의 유형이었다. 각 유파에 대한 얼마만한 개념이 생긴 후는, 나는 이 두 전집을 예과를 졸업하기까지 3년 동안에 전부 독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밤이나 낮이나 학교에

서 강의 듣는 시간 외는 그것 읽는 데 전심하였다. 결국 나의 이 계획은 다 수행되지 못했으나, 그 전집 중에 나오는 중요 작가의 대표적 작품이라는 것은 대개 다 읽었다. 나의 독서 방법과 범위가 이러하였으므로 그때 나는 누구 특수한 작가의 영향을 받지는 못하였다. 하기가 그러는 동안에 입센, 스트린드베리, 메테를링크, 체호프 같은 작가의 작품은 거의 통독하다시피 하였으나, 그것도 그들에게 대한 특별한 애호라기 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대표한 유파나 국민적·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 시절의 독서를 통하여 받은 영향이란 그 전 독서 내용이 총합하여 나의 문학에 대한 애호를 나의 숙명처럼 만들어 준 점과, 나의 문학감상의 눈과 태도를 만들어 준 점에나 있다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대학에 들어간 후는 전공하는 영문학 텍스트 공부 때문에 이런 낭만적 독서는 할 수 없었으나, 대체로 1학년 때에는 각국의 고전주의 작품을, 즉 영국의 셰익스피어, 밀턴, 포우프 등의 작품과 불란서의 라신느, 코르네이유, 몰리에르의 작품과, 그리고 독일의 괴테, 실러 등의 작품을 읽고 고전주의에 대하여 이해를 얻으려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괴테에게서 문학상으로가 아니라, 인생철학상으로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 <파우스트>를 통하여 받은 「영원의 노력」과 엑켈만의 <괴테와의 대화>를 통하여 배운 모든 인간적 기능이 완전히 조화·발달된 전인애의 이상이다.

2학년생이 되면서는 미학과 예술철학이 주로 나의 독서 범위였다. 그리하여, 학교 도서관의 도서 분류목록 중의 미학과 예술철학의 항목에 있는 서적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에 전부 독파하려는 턱없는 계획을 세우고, 우에다(植田) 박사의 <예술철학>, 아베(阿部) 교수의 <미학>을 비롯하여 테느의 <예술철학>, 톨스토이의 <예술론>, 크로체의 <미학>, 그

로세의 <예술의 시원>, 레싱의 <라오코>, 귀이요의 <사회학상으로 본 예술>, 피들리의 <예술론>, <예술활동의 기원> 등을 되는 대로 난독하다가 예정하였던 10분의 1도 못 읽은 동안에 3학년 1학기가 닥쳐 창황히 매슈 아놀드와 페이터를 되는 등 마는 등 엮어매어 졸업 논문입네 하고 내어놓고는 쫓겨나왔다. 그런데 나온 후 나는 소설가가 되려던 이 성과는 엇비풀어져 평론이랍시고 무엇을 끄적거리게 되고 보니, 직접 글 쓰는데 우려먹는 것은 이때까지 읽은 문학작품보다도 문학론이나 예술론이다.

그리고 보니 지금 나에게 직접 표면으로 나타나는 영향이 있다면, 앞에 적은 그런 미학이나 예술철학 서적의 그것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대학에 있는 동안 늘 독일철학 강의 듣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므로 독일 관념철학이 나의 사고방법 같은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남의 영향으로만 뭉쳐진 나는 보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흐리멍텅이다. 이제부터는 나도 좀 공부해서 남에게 영향을 미쳐야 남의 꿈무니만 따라다니며 고생하던 분풀이를 할 텐데, 스스로 저를 돌아보아 딱하기 짝이 없다.

(《조광》, 5권 3호, 1939. 3. 1)